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30年의 成長과 1990年代를 向한 展望

姜 信 澤*

目次	
一. 回顧와 展望의 視角	5. 學士課程(學部)의 新設
1. 叙述의 形式	6. 教授陣의 持續的 發展
2. 回顧와 展望의 自省的視角	7. 行政調查研究所의 發展
二. 最初 20年(1959~1979)의 回顧	四. 1990年代의 目標와 展望
1. 第1次 10年(1959~1969)의 基礎	1. 秀越性의 追求
2. 第2次 10年(1969~1979)의 業績	2. 變身의 要求
三. 第3次 10年(1979~1989)의 目標와 實績	3. 教科課程의 再整備와 運營方法의 改善
1. 政治情勢와 大學像의 未定着	4. 教授陣의 發展
2. 碩士課程의 持續的 發展	5. 研究活動의 強化
3. 政策學科의 新設	6. 施設擴充
4. 博士課程의 發展	7. 國際協力과 國際教育
	8. 同窓會의 協力

一. 回顧와 展望의 視角

1. 叙述의 形式

1989年은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이 成年을 지나 成熟期에 접어든 創立 30週年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1959年に 탄생한 行政大學院은 創立 10週年이 되던 1969年に 여러가지 紀念行事와 더불어 最初 10年間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다음 10年間(70年代)을 展望하는 各種論文을 執筆하여 行政論叢 第7卷 第1號에 게재한 바 있고 創立 20週年인 1979년에도 各種 紀念行事를 치룬 다음에 紀念論文을 집필하여 行政論叢 第17卷 第2號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回顧와 展望은 하나의 傳統이 되어 行政大學院의 빛나는 歷史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승발전되어 나가리라고 믿는다.

創立 20週年을 맞이 하던 1979년에 行政大學院 20年의 成長을 回顧하면서 1980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院長

年代에 指向해야 할 目標를 제시하고 展望한 글에서는 「1989年에 行政大學院의 創立 30週年을 紀念할 때 이와 같은 目標에 비추어 1980年代 行政大學院이 이룩한 바를 回顧하는 尺度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하고 있다.¹⁾

위와 같은 前例와 傳統에 따라 이 글의 題目도 表題와 같이 하였고 回顧와 展望도 거의 비슷한 形式에 따라서 서술하고자 한다. 즉 筆者는 이 글에서 行政大學院의 最初 20年(1959~1979)을 回顧하고 第 3 次 10年(1979~1989)의 目標과 實績을 평가한 다음에 第 4 次 10年(1989~1999)을 展望하려는 것이다.

2. 回顧와 展望의 自省的視角

筆者는 前例의 體制를 따르되 몇가지 自省的視角을 가지고 이글을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行政大學院의 궁극적 目標가 成就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보는 視角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行政大學院의 궁극적 目標는 「普遍的・世界的 秀越性(universal-global excellence)을 가진 行政學 碩士學位水準의 初任級 高級公務員을 育成하기 위하여 教育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目標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事項 내지 條件이 잘 結合되어야 한다.

(1) 知識水準

行政學教育의 普遍的 秀越性을 成就하는데 있어서 追求하는 知識水準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²⁾

첫째는 既存知識을 傳播하는 것이다.

둘째는 新知識의 生產者와의 對話에 參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新知識의 生產者로서 國際的으로 認定을 받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세가지 水準에 있어서 行政大學院이 도달하려는 水準은 세째 水準이 뒤에 할 수 있겠는데, 그러자면 우리에게만 專門化된 特수 영역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2) 學位와 職業教育

오늘날의 大部分의 專門職業教育은 學問的 教育과 職業訓練을 兼하고 있다.

1) 俞君(당시 行政大學院 院長),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年의 成長과 1980年代를 向의 展望」『行政論叢』第17卷 第2號 (1979) p.1.

2) Stephen P. Heyneman and Bernadette Etienne,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hat, How and When?", IDS Bulletin, Vol. 20, No. 1 (January, 1989), p.43. Publication of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ussex 참조.

따라서 高級公務員 養成을 위한 行政學教育이 진정한 의미의 專門職業教育이 되려면 行政學 碩士學位 所持與否가 一定職級 이상의 公務員에 任用될 수 있는 資格要件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專門職業分野에서 從事하려면 免許(license)나 資格(qualification)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行政公務員은 물론 免許나 資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의 복잡한 政府權能을 수행하자면 專門化된 일정수준의 學問的教育이 필요한 것이다.

行政公務員의 任用資格檢定의 한가지 方法이 試驗인데 이와 같은 試驗과 行政學教育間의 관계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行政學 및 關聯科目을 獨學하거나 私設 學院에서 修學하는 것이다.

둘째는 學位課程에서 取得한 一定學位를 職級別 任用試驗의 要件으로 삼는 경우이다.

세四是 特定 教育機關의 出身者를 그에 상응하는 職種과 職級에 任用하는 것이다.

行政大學院의 草創期 計劃은 세째의 方式에 의하여 行政學 碩士學位課程教育 및 再教育과 高級公務員 任用制度間에 連繫(linkage)를 맺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둘째의 경우에도 該當되지 않고 있어서 行政學 學問教育과 公務員 職業訓練이 乖離된 狀態나 다름이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3) 大學組織體系와의 連繫

公務員을 養成하기 위한 教育機關에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政府나 大學과는 아무런 연계가 없는 형태로서 사실상 각종 試驗準備學院 |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政府의 部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것이 學位課程일 수도 있고 非學位課程일 수도 있다.

세四是 行政學教育을 통한 公務員養成을 大學組織體系와 連繫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方式이 있겠으나 너무 論議가 걸어지므로 생략한다.

결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이 그동안 指向하고 追求해 온 目標는

- ① 國際的으로 認定받는 新知識生產者로서의 知識水準에 到達하며
- ② 그와 같은 知識水準에서 교육된 碩士學位 所持者를 政府의 高級公務員으로 進出시키며 博士學位 所持者를 學界와 研究所등에 진출시키는 것인데
- ③ 위와 같은 教育은 大學組織體系와의 連繫속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專門職業大學院(professional school)으로 成長・發展하고자 하는 것 이 있다

後述하는 回顧內容이 밝혀 주듯이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은 專門職業大學院으로서 우리나라에서 先驅者的 역할을 수행해 왔고 빛나는 義績을 쌓아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追求해온 目標는 순조롭게 또는 滿足스럽게 成就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筆者는 自省的視角을 가지고 回顧하며 展望하려는 것이다.

시나간 30年間에 걸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歷史는 서울大學校가 누리는 荣光을 함께 누리면서도 그동안의 届折된 韓國의 政治·行政과 届曲된 大學史를 또한 反映하고 있다. 즉 行政大學院의 創設自體가 政治史에 있어서 復興과 發展을 필요로 했던 한 時代의 產物이라고 한다면 그 後의 30年은 격동하는 政治·行政과 더불어 일그러진 大學像속에서 忍苦의 努力으로 生存하고 成長해온 機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政治的 變革은 有能한 發展의 役軍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行政大學院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政府의 統制指向의 大學政策과 이에 대한 大學行政當局의 便宜主義的 對應 및 大學人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大學像은 行政大學院의 成長에 장애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行政大學院은 國家發展에 이바지한 荣光스러운 機關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自負하는 것에 比하던 그에 相應하는 外部的 評價를 받기 못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發見하기도 하는 것이다.

二. 最初 20年(1959~1979)의 回顧

1. 第1次 10年(1959~1969)의 基礎

(1) 行政大學院의 使命

行政大學院은 「行政學教育을 통한 高級公務員의 養成」을 目標로 1959年に 서울大學校에 創設되었는데 이것은 二重의 歷史的使命을 띠고 있는 것으로 認識된다. 즉 「첫째 使命은 開發段階에 들어설 韓國에 있어서 매우 必要한 行政學이라는 學問을 이 나라에樹立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와 關聯하여 새 時代의 國家發展의 役軍으로 奉仕할 수 있는 新로운 類型의 行政官僚를 養成해내는 使命이었다」고 한다.³⁾ 이와 같은 使命을 가진 行政大學院은 既存 教育單位에다가 하나의 教育單位를 追加하는 것만이 아니었고 「거의 敵對의이 있다고 할

3) 李漢彬 (10週년 당시 行政大學院 院長), 「開發年代의 機關形成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最初 10年의 成長과 70年代를 向한 展望」『行政論叢』第7卷 第1號(1969), pp.10-11.

만한 學界의 雾靄氣 속에서 「一團의 學者群을 創出」하는 것이면서 「또한 傳統的 規範과 前例가 風靡하는 官僚制속에서 새로운 部類의 官僚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意志의 宣言」이었다고 한다.⁴⁾

(2) 專門大學院으로의 機關形成

「一團의 行政學者群을 創出」하는 使命과 「새로운 部類의 行政官僚群을 養成」하는 使命은 1950年代末 당시의 韓國의 政治狀況, 美國의 援助 그리고 學界의 훌륭な 指導者의 先見之明과 努力등이 결합되어 知識水準, 學位와 公務員職과의 連繫 그리고 大學組織體系와의 連繫라는 側面에서 구체적으로 特殊한 모습을 形成해 나갔으며 그것이 行政大學院의 基礎가 될 것이다.

첫가지 知識水準의 側面에서 볼 때, 既存知識의 傳播, 新知識 產出者와의 對話 그리고 新知識 產出者로서의 國際的 認定이라는 水準에서 평가할 때 아무래도 草創期에는 既存知識의 傳播에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네소타」大學校의 協力에 의하여 젊은 行政學者群이 創出되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政策管理之心의 美國 行政學이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知識의 傳播는 教科課程에 따른 教育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教科書와 行政論叢을 통해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最初 10年의 後期에 와서는 國際的인 學術交流를 통하여 行政學 新知識(例：發展行政)의 產出者와의 활발한 對話도 이루어졌으나 우리 스스로가 新知識 產出者로서 國際的인 認定을 받는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둘째 行政學 學位와 公務員 任用資格과의 連繫問題이다. 「發展의 役軍」으로規定된 것은 職業公務員으로서의 高級公務員이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學問水準은 碩士學位課程水準以上의 知識이다. 따라서 行政大學院의 學生을 一部와 二部로 區分하여 選拔하였는데 一部生은 學士學位를 가진 任用前의 學生이며 二部生은 事務官級 이상의 現職 公務員으로서 일종의 在職者 再教育을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期待했던 것은 一部生이 碩士學位를 取得하면 事務官級으로 任用되는 것을 制度的으로 保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期待속에서 優秀한 學生들이 몰려 들었으나 소위 「制度的 保障」은 실현되지 않았고 이것이 行政大學院의 성격을 또 하나의 學位課程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셈이다.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에서 碩士學位를 취득하면 6級(종친의 4甲)으로 特採되는 길은 있으나 高試에 합격한 後輩나 同級生보다 낮은 職級에 任用되는 것

4) 上揭論文, p.2.

이기 때문에 學生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었다. 결국 政府의 高等考試 應試資格에 기 學士學位와 碩士學位에 差等을 두지 않기 때문에 高試에 관한 限 碩士課程再修過程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특히 전국各大學의 學士課程에 行政學科가 많이 設置된 후로는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하여 行政大學院 最初 10년의 後期에 와서는 學位와 任用資格間に 制度의 連繫를 保障하기 어려운 狀況에서 行政學 碩士課程의 學問的인 質을 向上시키으로써 그렇게 訓練된 人力을 政府가 必要하게 만드는 쪽으로 目標를 修正하였다 어느 정도 成功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連繫는 未洽하다.

시제는 專門職業大學院과 大學組織體系와의 連繫問題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國家의 政策에 의하여 새로운 行政官僚群을 養成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畫間部 卒業生조차 高級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것을 制度의으로 保障하지 못하는 형편속에서 全國各大學에 夜間制 行政大學院이 계속해서 設立된 것이다. 이러한 現象을 놓고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이 專門職業大學院의 示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서울大學校와 他大學의 行政大學院은 그 名稱은 같지만 그 性格은 아주 다른 것이다.

우선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一部生은 專業學生(full-time)이며 二部生은 公務員으로서 事務官級 이상이고 專任教授陣을 가지고 있다. 이에 比하여 他大學校의 行政大學院에서는 畫間部 專業學生이 없고 二部生(夜間)의 資格制限이 없으며 教授陣은 대부분 兼任教授이다. 이와 같은 性格의 差異는 서울大學校의 行政大學院을 알아야만 理解할 수 있는데 그 點에 관해서는 後述키로 한다.

결과적으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은 창설후 最初 10年間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는 하였으나 本來의 設立意圖에서 벗어났고 또 類似課程이 他大學에도 생겨나게 되어 여러개의 專門職業大學院中의 하나가 되고만 셈이다. 따라서 行政大學院은 高級公務員 養成責任의 一部를 직접적으로 分擔하는 것이 아니라 行政學의 發達을 先導하고 行政學 碩士學位課程의 質을 向上시키며 教育課程을 多樣化함으로써 間接的으로 寄與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脈絡에서 有 2次 10년의 業績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第 2 次 10年 (1969~1979)의 業績

() 서울大學校 學事組織의 改編

1975年에 서울大學校의 綜合化計劃이 實現되면서 學事組織도 크게 改編되었다. 종전의 文理科大學이 人文, 社會, 自然大學등으로 分離되는 것과 같은 大

學單位의 改編뿐만 아니라 單科大學과 大學院간의 관계도 크게 달라진 것이다.

즉 綜合化와 함께 教養課程部가 廢止되고 基礎課程委員會라는 것을 두어 教養課程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教務處에서 그業務를 管掌하게 되었고 각 單科大學은 學士課程 專攻學生의 教育을 관장하였으며 大學院에서 大學院課程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大學院은 名目上의 조직에 不過하여 大學院 碩・博士課程經營의 行政業務는 教務處가 맡게 되었고 教授陣構成과 教科目開設 및 講義는 각 單科大學과 學科에게 委任되어 있다. 따라서 각 單科大學은 실질적으로 學士 碩士・博士課程을 垂直的으로 統合하여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改編의 결과로 保健・行政・環境 등의 專門大學은 그 名稱에도 不拘하고 大學院組織의 一部라기 보다는 碩・博士課程을 운영하는 單科大學과 같은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듯 行政大學은 大學院organization의 一部分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實質에 있어서는 學士課程이 없는 單科大學과 같은 性格을 갖게 되었다는데에서 그것이 서울大學校의 學事組織體系와 連繫를 맺기가 좀 不安定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2) 既存 碩士課程教育의 強化

前述한 바와 같이 行政大學院 畫面部에서 碩士學位를 取得한 者들을 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것이 制度의으로 保障되지 않았고 또 行政大學院이 서울大學校組織上: 教育單位의 하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行政大學院의 存在意義를 認定받으려면 우수한 卒業生을 選出하여 政府로부터 그들의 優秀한 能力を 認定받도록 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 時期에 政策學分野를 강화하면서 教科課程이 정비되었다. 다만 서울大學校의 冠岳山移轉으로 現職公務員인 二部生의 通學距離가 멀어져서 二部의 入學資格을 高等考試合格者로서 任用前에 있는 者들에게 까지 擴大함으로써 그들이 研修를 받는 동안 大學院에서의 授業이 不實해지거나 흡이 생기기도 하였다.

(3) 行政學博士課程의 新設

1973年에 行政學博士學位課程이 新設되어 國內各大學과 研究所에 進出할 學者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博士課程設置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博士學位課程을 운영하는 것은 專門大學院으로서의 行政大學院의 性格에 符合되지 않으며 行政學學位는 專門職業學位(professional degree)이므로 學問學位(academic degree)인 博士課程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 등이었던 것이다. 결국 博士課程經營을 承認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抵抗은 行政大學院과 大學組織體系間의 連繫가 未洽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또 하나의 例인

것이다.

(4) 高級管理者教育課程

이 코스는 이미 第1次 10年期間中에 提案되었던 것인데 1970年初부터 本格的準備를 거쳐서 國際聯合開發機構(UNDP)의 支援下에 1971年에 開設되었고 1972年부터 受講生을 받아 教育하였다. 이 코스의 韓國名稱은 發展政策研究課¹⁵⁾으로 하였으나 英文으로는 Advanced Center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ACAD)로 하고 있다. 서울大學校의 學事組織體系上 이와 같은 코스는 正規 教育課程으로 두기가 어려워서 學則上의 「公開講座」規定의 적용을 받고 있다.

發展政策課程은 세가지 事業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政府의 副理事官級以上의 公務員, 軍의 將官級 將校 그리고 公·私企業體의 任員등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每月 6個月間의 教育이고 둘째는 重要政策을 研究發表하는 每年 2回의 國家政策세미나(National Policy Seminar)이며 세째가 研究 및 出版事業이다. 위의 첫째와 둘째의 事業은 出發初期부터 큰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세째 事業도 論叢刊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으나 發展政策課程의 獨자적인 研究사업은 財政形便등의 사정으로着手조차 되지 않은 狀態다.

(5) 教授陣의 發展

創設以來 教授數가 꾸준히 增加해 왔는데 이 期間中에는 教授數의 變動이 커졌다. 1972年에 19名이던 人員이 環境大學院의 分離新設, 綜合化에 따른 移動 그리고 個人事情에 의한 辭任등의 사유로 1977年에는 11名으로 줄기도 했는데 곧 充實이 이루어져서 1979年에는 13名으로 增員되었다. 이 期間中에 經濟學專攻教授가 1名 充員되었다.

發展政策課程을 支援하는 UNDP의 援助資金으로 거의 全員의 教授들이 海外研修의 機會를 가진 것은 特記할 만한 일이며 文教部 國費國外派遣에 의한 研究는 이루어졌다.

教授의 能力發展努力의 一環으로 Asia Foundation의 支援을 받아 Faculty Development Symposium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定期的인 教授세미나로 發展하는 教授相互間의 學術的 意思交換은 물론 外部人士와 卒業生을 초빙하여 論文發表를 듣는 모임으로 活用하였다.

(6) 調查研究事業

이 期間中에도 政府用役에 의한 研究事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서울大學校

5) 後에 發展政策課程으로 改稱함.

를 통한 文教部의 大學院重點育成 研究費의 惠澤을 입었으나 行政大學院의 獨自的의 研究計劃에 의한 研究는 未洽하였다. 그리고 카나다의 財團인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IDRC)의 研究費에 의하여 새 마을事業과 官僚行態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國際的인 共同研究에 참여하는 機會가 마련되었으나 그 後續研究事業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三. 第 3 次 10年(1979~1989)의 目標와 實績

1979年に 創立 20週년을 回顧하면서 앞으로 「第 3 次 10年에 該當되는 1980年代에 있어서 行政大學院이 指向해야 할 바」로서 提示된 것들은 (1) 碩士課程의 持續的發展 (2) 政策學科의 新設 (3) 博士課程의 發展 (4) 學士課程(學部)의 新設 (5) 教授陣의 持續的 發展 (6) 行政調查研究所의 發展 등이다.⁶⁾ 여기서는 위와 같은 目標와 對比한 實績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實績의 評價는 그 時期의 政治情勢와 서울大學校가 내세운 大學像등과의 脈絡 속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1. 政治情勢와 大學像의 未定着

1970年代와 1980年代의 政治狀況은 매우 硬直化된 가운데 學生運動은 激化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大學政策은 大學教育의 質的向上을 통하여 學園을 안정시키려고 努力하였는데 質的向上을 위한 諸般努力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劃一的 施行과 더불어 學園安定의 方便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大學의 自律能力만을 低下시키고 말았다.

大學教育의 質的向上을 위한 政策에는 實驗大學事業과 卒業定員制가 있었다. 實驗大學事業의 核心은 學士課程 新入生을 學科別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廣域系列別로 모집하여 充分한 基礎教育을 실시한 후에 上級學年에 가서 學生의 適性에 맞는 專攻을 選擇하여 履修도록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先行條件이 充足하면 매우 훌륭한 制度이나 몇 가지 先行條件이 充足되지 않은 가운데 强行되다 보니 人氣學科와 雜細學科등의 문제가 생겨나서 결국 失敗하고 말았다. 그런系列別募集制度는 서울大學校가 目標로 하는 「大學院中心大學」과 符合되는 것이어서 큰 힘을 기울여서 成功시키려고 努力하였으나 結果的으로는 大學構成員들이 實驗大學事業의 論爭에 휘말려서 정작 大學院問題를 소홀히 하였

6) 俞 烹, 前揭論文, pp.8-11 參조.

던 것이다.

주:業定員制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것이 大學教育의 質을 向上시키려는 政策 인데도 學生減員問題와 이를 둘러싼 粉爭속에 시달리느라고 本末이 전도되고 그만큼 相對的으로 大學院 學事運營에 관한 大學人の 時間과 關心을 不足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우와 같은 諸般事情은 大學들이 自律的으로 大學像을 定着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大學教育課程을 圖式的으로 理解하게 만드 것이 아니 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서울大學校의 關聯組織나 人士들은 한편으로는 行政大學院을 「特殊」하다고 해서 差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教育프로그램의 特殊性에 걸맞게 多樣化・專門化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支援하는 立場이 아니었다.

1979年에 提示한 行政大學院의 目標가 「1980年代에 行政大學院이 이룩한 바를 回顧하는 尺度가 되기」를 바란다.⁷⁾고 하였으나, 不幸히도 앞에서 言及한 몇 가지 事情等으로 인하여, 提示되었던 目標中에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거나 改善되거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 제 各項目別로 回顧해 보기로 한다.

2. 碩士課程의 持續的發展

行政大學院 創立以來의 核心的 課業은 碩士學位課程이기 때문에 이 課程教育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努力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課程運營이 매우 높은 水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改善되어야 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1) 總定員增加에 따른 學生의 質管理

1979年度부터 入學定員이 每年 100名에서 150名으로 增員되어 總定員 300名으로 늘어남으로써 學生의 質이 低下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特殊專門要員」試験制度등의 誘引으로 인하여 오히려 學生의 質은 향상되었다. 동시에 이 試験制度와 行政高試準備 등으로 學位論文의 質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一部生의 行政高試準備와 授業

行政大學院에서 碩士學位를 취득했다고 해서 公務員任用上 별도의 惠澤이 없는 制度下에서 一部生이 行政高試를 준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⁷⁾ 前揭論文, p.1 參조.

러한 事情이 授業의 水準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3) 二部生의 入試資格變更과 授業

서울大學校가 冠岳으로 移轉하면서 政府 中央部處의 公務員들이 日課後에 冠岳캠퍼스까지 通學하기가 매우 不便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事情때문에 二部生의 入學資格을 行政高試에 合格하고 아직 任用되지 않은 者들에게 까지 許容하였다. 學生의 年令이 젊어지고 質이 向上되었으나 同時에 그들의 研修와 授業期程이 重複되어 授業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未解決의 문제로 남아 있다. 또 이들 젊은 高試合格者와 경쟁할 수 없는 中堅公務員을 入學시키기 위하여 政府의 委託生制度등을 活用하고 있으나 아직도 未洽하다.

(4) 教科課程 修正

政策學分野가 教科課程에 補強되는 등 改善되었으나 아직도 體系를 정비해야 한다.

3. 政策學科의 新設

i) 期間中 政策學科를 新設하려는 노력은 大學當局의 學科增設抑制方針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고 그 대신 行政學科를 行政學專攻과 政策學專攻으로 分離하였다. 다만 두 專攻間의 教科課程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4. 博士課程의 發展

目前로 내세운 政策學分野의 科目的 補完등과 政治學, 社會學, 經濟學등의 副專攻 형태의 履修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副專攻을 아직도 該當學科에 가서 履修해가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이수시키고 있다. 그리고 現職公務員의 博士課程入學은 아직도 억제되고 있다.

5. 學士課程(學部)의 新設

行政大學院에 行政學士課程을 設置해야 할 必要性이 認定되고 力說되었으나 그러자면 行政大學院을 「行政大學」으로 改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抵抗이 많아서 아직도 實現되지 않고 있다. 흔히 말하기를 首都圈 學生增員抑制 政策 때문에 行政學科를 新設할 수 없었던 것 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은 畢業定員制에 의한大幅增員時와 系列別募集에서 學科別募集으로 되돌아올 때 그 學科定員調整時에 行政學科 學士課程設置가 許容되기만 했더라면 必要한

定員을 획득할 수 있는 機會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 있듯이 形式論理에 입각한 大學像과 既得權옹호등이 장애로 작용하여 行政學 學士課程을 新設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6. 教授陣의 持續的發展

◦ 目標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우선 教授數가 1979年 13名에서 1988年의 18名으로 증가하였고 UNDP의 援助로 多數의 교수가 海外研究의 機會를 가졌다. 서울大學校 財源의 惠澤을 입어 國外研究의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리고 學術的인 交流의 場으로서의 세미나도 계속되고 있다.

7. 行政調查研究所의 發展

行政調查研究所의 發展目標로 여러가지가 提案되었다. 첫째는 研究所는 行政大學院附設 法定研究所로 昇格시키는 것인데 與件이 맞지 않아 推進되지 않았다.

둘째로 行政研究基金을 造成하는 것인데 當時 保有하고 있던 基金額보다 별로 증가된 것이 없다. 다만 1986年경 부터 서울大學校 자체가 「發展研究基金」을 대대적으로 募金할 때 行政大學院 뜻으로 마련된 基金計定이 생겨서 基金計定에서 1988年度부터 研究費를 支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研究支援을 계기로 그동안 自體研究基金에서 每年 3名의 教授에게 支給하던 研究費는 中斷되었다.

셋째로 專任研究員의 確保인데 이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四. 1990年代의 目標와 展望

行政大學院은 1959년의 創設以來로 第1次 10年間에 그 基礎를 다졌고 第2次 10年間에 크게 成長하였으며 第3次 10年間에 成熟해지기는 하였으나 第3次 10年을 向하여 明示的으로 設定했던 目標의 達成與否를 평가해봤을 때 不幸히도 滿足스러운 것이 못된다.

이렇듯 第3次 10年的 目標達成이 外形上 滿足스럽지 못한 理由는 아마도 그려나 目標들은 어느 教育機關이라도 永久히 꾸준하게 追求해야 되는 그러한 目標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즉 第3次 10年을 향하여 제시된 目標중에는 단순히 그 實現與否는 평가할 수 있는 項目도 있지만, 대부분의 項目은 質的 向上

의 문제이기 때문에 實現與否보다는 實現程度를 평가해야 할 문제로서, 앞으로도 계속 追求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筆者는 過去에 設定한目標⁵⁾項目들은 90年代에도 계속 追求해야 할 目標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와 같은 目標의 反復的인 羅列을 피하고 좀 더 다른 角度에서 行政大學院⁶⁾ 90年代를 展望하고자 한다.

1. 秀越性의 追求

그동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이 총체적으로 追求해 온 목표는 行政學教育을 통한 高級公務員의 양성이다. 오늘날의 복잡한 政府機能을 수행하려면 高級公務員⁷⁾ 碩士學位課程 以上的 專門的 知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行政大學院⁸⁾ 같은 專門職業大學院의 체제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教育機關의 목적이 단순히 公務員을 교육하는 것만이라면 그러한 機關을 구태여 大學校에 소속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公務員을 養成하려는 機關을 大學校에 所屬시키는 理由는 知識의 創造 즉 研究와 連繫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行政大學院 創立當時에 期待했던 條件은 첫째가 그 出身者の 任用을 制度의 으로 保障받는 것이고 둘째가 職業大學院으로 成長發展하는 것이며 세째가 새로운 知識의 創造者로서 國際的인 認定을 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條件중 첫째의 것은 草創期부터 가망이 없어서 目標를 修正하게 되었고 둘째의 것은 서울大學院⁹⁾의 綜合化와 他大學校에서 늘어나는 各種「特殊大學院」設立때문에 差別과 反射的 不利益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行政大學院이 앞으로 「行政大學」으로 改編¹⁰⁾ 되던 또는 안되던간에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은 韓國行政의 몇 가지 專門的¹¹⁾ 分野에서 새로운 知識을 創出하는 能力を 國際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수준¹²⁾ 이르도록 教育과 研究의 秀越性(excellence)을 꾸준히 追求하는 일이다.

2. 變身의 要求

(1) 行政學 學士課程의 新設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大學校 뿐만 아니라 大學內의 폐쇄성이 강하고 또 基礎專攻 大學院課程間의 縱的 연결을 중요시하는 體制下에서 行政學教育을 向上시키려면 學士課程을 設置함으로써 行政大學院을 行政大學으로 改編하려는 努力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秀越性을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現在로서는 이러한 改編案이 여러가지 校內의 抵抗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雲團

氣가 好轉되면 學士課程에 行政學科, 政策學科, 地方 및 都市行政學科등을 設置해야만 專門化趨勢에 符合되고 또 7級 公務員으로 進出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다.

(2) 碩士課程의 專攻細分化

草創期부터 細分化된 專攻教育이 學問이나 就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一般化된 行政學教育을 實시해 왔으나 앞으로 行政大學으로 改編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現在의 體制下에서도 學科分離(行政, 政策, 地方 및 都市行政)와 더불어 各學科內에서 專門化된 교육을 實시해야 된다. 이것은 소위 문어발식으로 行政分野를 모두 綱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限定된 몇개의 分野에 集中(concentrate) 함으로써 優位를 確保하고 그럼으로써 知識의 創出者로서 國제적인 認定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3) 發展政策課程

이 課程도 현재와 같이 公開講座形式으로 운영됨으로써 마치 臨時的이고 非公式的인 教育프로그램인 것 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벗어나서 좀더 安定된 制度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教科課程의 再整備와 運營方法의 改善

行政大學院이 行政大學으로 改編되고 專攻의 細分化로 集中分野(field of concentration)가 확정되면 그 때 당연히 教科課程의 體系的인 改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라도 개설할 것이다.

첫째 현재 碩士課程의 모든 教科目이 2學點制로 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3學點制로 轉換하여 教授別 擔當科目的 종류를 줄이고 教科목의 內容을 深化시켜야 한다.

둘째 政府人士 또는 卒業生을 초청하는 特講을 實시하고 現場見學도 實시하는 등 教育內容이 多樣化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論文提出資格考查의 試驗問題 出題方式이 개선되어야 한다.

4. 教授陣의 發展

教授의 數를 늘리고 能力を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努力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教授陣의 構成에 관한 限 1990年代는 行政大學校 40年の 歷史를 맞으면서 가장 重大한局面을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草創期부터 在職해 오던 教授 6名과 卒業生出身 教授 1名을 合하여 7名

의 教授가 다음 10年間에 停年退職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슬기롭게 새로운 教授陣을 充員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行政大學院의 將來가 달라진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6名의 教授는 같은 年度에 모두 退職하게 됨으로 一時的인 空白이 생기지 않고 年齡層의 分散이 이루어지도록 停年退職前後에 걸쳐 時差를 두고 새로운 教授를 充員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研究活動의 強化

行政學이라는 學問의 성격上, 그 教育과 研究에 있어서 政府의 構造와 機能에 관한 研究가 必須의 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行政大學院은 創設以來로 各種 研究를 활발하게 進行하고 많은 業績을 쌓아 왔다. 그러나 研究活動을 持續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問題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安定된 研究財源을 確保하는 일이다. 그동안 安定되고 지속적인 研究財源이 不足하여 臨機의 用役등에 主로 依存해 온 관계로 研究課題의 지속성이 不足하게 되었다. 近來에는 多幸히도 文教部의 學術研究助成費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또 서울大學校의 發展研究基金의 支援이 생겨서 研究財源이 다소 安定되어 가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安定된 研究財源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는 研究財源의 安定的確保와 兼行하여 行政大學院의 特徵을 나타내고 比較優位가 보장될 수 있는 研究領域을 專門化시켜 나가야 한다. 傳統적으로 行政學의 固有領域이라고 생각되는 行政官僚制와 管理分野는 계속 연구되어야 하니 政策分野에서는 限定된 研究人力으로 모든 實質的分野를 다룬 수는 없는 것 이므로 財政, 公企業, 產業, 通商, 科學技術, 教育, 保健, 에너지 그리고 都市 등 몇 가지 限定된 分野에 專門化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行政大學院이 韓國行政의 特定分野에서 新知識을 創出할 수 있게 되고 國·內外的으로 認定을 받게 될 것이다.

세자는 서울大學校의 人事政策上 아직도 研究所에 專任研究員을 任命하는 것 이 困難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隘路를 打開하고, 또 行政調查研究所가 行政學 研究人力의 求心點이 될 수 있도록 關聯된 研究人力의 連繫網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6. 施設擴充

1950年代初에 行政大學院은 당시 院長의 노력으로 政府豫算의 支援을 받아

獨立建物을 建立하였으나 校內 事情으로 他學科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 後 教授의 增員등으로 필요하게 된 最少限의 施設空間조차 제대로 補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餘裕空間을 確保한다는 次元을 넘어서서 行政學의 教育과 研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施設의 「高級化」가 切實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高級化는 사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教育과 研究를 위한 施設과 圖書의 充實化를 뜻하는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教育 및 研究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政府文書의 保管·活用을 가능케 하는 「行政圖書館」을 수용할 수 있는 建物이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施設擴充은 行政大學院이 教育機關으로서 뿐만 아니라 水準 높은 研究機關으로 內實을 다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7. 國際協力과 國際教育

近來에 와서 行政大學院의 國際的인 學術交流가 다소 低調한 편이다. 그것은 國際的인 共同研究에서 뿐만 아니라 人的 交流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제는 다시 國際協力を 強化하고 國際教育에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國際的인 共同研究에의 參與, 外國學者의 短期 초빙 강의 그리고 外國公務員을 위한 特講등이다. 또한 韓國語로만 刊行物을 出版해서는 交流가 限定되기 때문에 이미 發行하기 시작한 英文 政策論叢인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 同窓會와의 協力

지금도 行政大學院 總同窓會와 發展政策課程 總同窓會와는 緊密한 協助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發展研究基金에의 支援도 받았고 在學生을 위한 獎學金支援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協力이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支援을 制度的으로 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畢業生이 行政大學院의 教育을 評價하여 還流시키며 擔當하고 있는 專門分野에 과하여 特講을 실시하는등의 協力으로 行政大學院의 教育과 研究의 質을 向上시키는데 寄與도록 해야 할 것이다.